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1000-000016-01

푸른 꿈의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비상, 龍

2024.2.27_(화) ~ 5.12_(일)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원주시역사박물관

알려두기

- 이 도록은 원주시역사박물관이 2024년 2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한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 전시 도록이다.
- 전시유물 설명은 명칭·유물번호·입수처·크기·작가·시대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크기의 단위는 cm이다.
- 도록에 수록된 모든 유물의 소장처는 원주시역사박물관으로 도판 설명에는 소장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 도록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은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목 차 Contents

	인사말 Greeting	7
Part I.	프롤로그 Prologue : 청룡이 나르샤!	8
	1.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	10
	2.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듯이	14
Part II.	변화무쌍 용, 삶에 깃들다	18
Part III.	신통방통 용, 재주를 부리다	36
	1. 용, 칠기와 만나다	38
	2. 용, 화폭에 담기다	45
Part IV.	에필로그 Epilogue : 우리 곁에 있어용龍!	51
	참고문헌	57

인사말 Greeting

원주시역사박물관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푸른 꿈의 비상, 龍》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함께 해온 용의 전통적 상징성과

현재까지도 우리 곁에 전해 내려오는 지역 설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모습까지

용의 다채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용은 십이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지만, 예부터 전해오는 선조들의 일상용품과

그림, 공예품 속에 뚜렷한 형상으로 남아있어 마치 실존하는 동물처럼 친숙하면서도

신성한 존재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용이 지닌 강력한 힘은 왕의 신성한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벽사와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용에 얹힌 상징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늘로 비상하는 힘찬 청룡의 기운을 받아 2024 갑진년에는

꿈꾸는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원주시역사박물관장

2024년은 청색을 뜻하는 천간^{天干}의 갑^甲과 용을 의미하는 지지^{地支}의 진^辰이 합쳐진
갑진년 청룡^{靑龍}의 해입니다.

용은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이자 봉황·거북·기린과 함께 사령^{四靈}에 해당하는 전설 속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특히 청룡은 청색을 상징하는 동쪽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더욱 으뜸이라 여겨졌습니다.

십이지^{十二支}의 열두 신장^{神將} 중 오전 7시에서 9시, 음력 3월을 담당하는 시간의 신이자
동남동^{東南東} 방향을 지키는 방위의 신으로 오행으로는 토^土에 해당합니다.

용은 난관을 인내하고 잘 극복하여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뛰어난 인물을 상징합니다.
중국 황허^{黃河} 상류에 있는 급류 ‘용문^{龍門}’의 거친 물살을 뚫고 한 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가 용으로 변한다는 등용문^{登龍門} 고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용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며 끈질기게 노력한 물고기만이 비로소 용이 되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는 청룡의 굳센 기운을 받아 각자만의 소중한 꿈과 기상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프롤로그^{Prologue}

Ⅰ 청룡이 나르샤!

1.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
2.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듯이

1.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

001 동제십이지문경

원주001358

길이 10 너비 10 두께 0.5
고려

중앙의 고리^ㅁ를 중심으로 십이지 동물들이
양각되어 표현된 청동제 거울이다.



002 동제십이지문별전

원주001357

길이 7 너비 7.1 두께 0.25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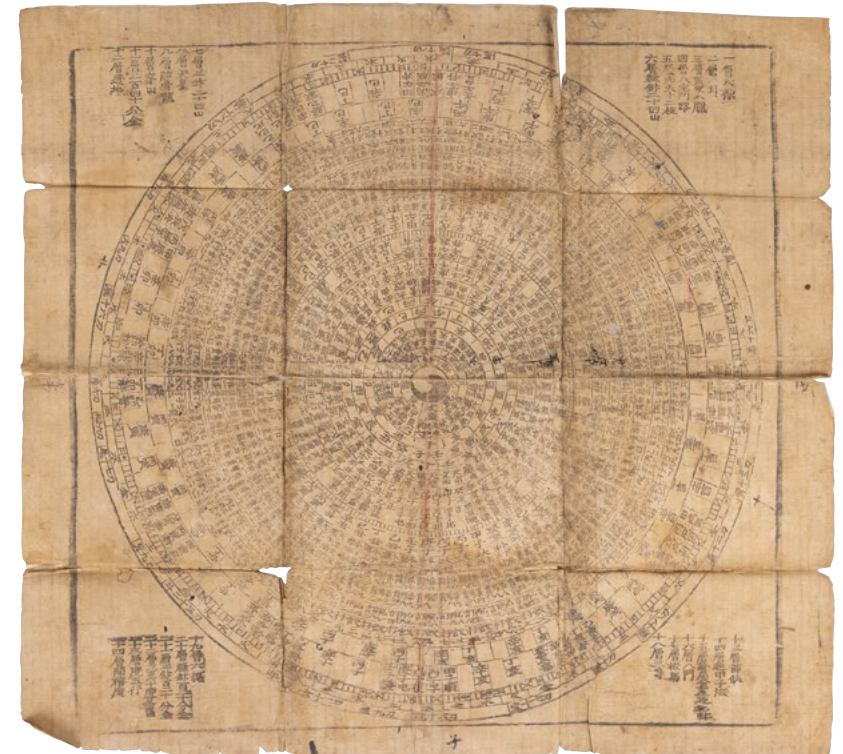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십이지^ㅁ를 나타내는 한자와
십이지 동물이 음각되어 있다.

003 십이간지도

기탁000209
이재옥 기탁

가로 52.5 세로 49
조선

방위를 재는 데 사용했던 그림으로 둘레에는 방위별로 십이지^ㅁ가 적혀 있다.
중앙의 태극^ㅁ 문양을 중심으로 24개 층위별 기능이 적혀 있으며,
용^ㅁ의 방위는 동남동이다.



004

십이생초장묵 十二生肖藏墨

원주001125

먹 가로 3 세로 0.9 높이 7.7

전체 가로 17.9 세로 27.9

조선

12개의 먹 위에 십이지생초^{十二支生草}가 음각되었다.
십이지생초는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며 각 지지에서
방향과 시간을 맡아 수호하는
열두 가지 동물의 형상을 의미한다.



2.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듯이

005

청화채어형연적

원주001106

너비 8.5 높이 3
조선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문방도구로
잉어가 중국 황허 상류의 용문을 튀어 오르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登龍門} 고사에서 유래하여
입신양명의 염원을 담았다.



006

포어문메달

원주000257
오병세 기증

너비 8.5 높이 3
조선

양면에 잉어가 해를 바라보며 파도 위를 뛰어오르는
모양을 새겨 과거급제를 기원하였다.



007

나전과반 도안

일사000080
김육환 기증

가로 53 세로 29.5
일사-抄 김봉룡 | 1970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魚變成龍)는
등용문 고사를 표현한 나전 도안이다.



008

신년등룡도 新年登龍圖

원주000604

가로 54 세로 162
조선

잉어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약리도(躍里圖)는
예부터 등용문에 오르기 위해
학문에 힘쓰는 선비의 출세를 의미하였다.
소나무에 걸린 붉은 아침 해는 여의주와 함께
난관을 뚫고 얻은 희망을 상징하여,
물보라를 일으키며 솟구쳐 올라
용을 꿈꾸는 잉어의 힘찬 모습을 담았다.



Ⅱ 변화무쌍 용, 삶에 깃들다

용은 인간의 창조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안 본 용은 그러도 본 뱀은 못 그린다”

라는 속담처럼 예로부터 인간의 상상 속에서 뚜렷한 형상으로 자리해왔습니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용은 “머리는 낙타, 뺨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큰 조개^蜃,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와 같으며

등에는 81개의 비늘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각양각색의 아홉 마리 동물들이 가진 강점들만 모아둔 모양을 띠고 있는 용은

실존하는 어떤 동물보다 신성한 권위와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왕을 지칭하기도 하여 용안^{龍顏}, 용루^{龍淚}, 용상^{龍床}, 용포^{龍袍} 등의 표현과 함께

왕과 관련된 기물에는 용이 대표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었고,

출세를 염원하고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비정신을 상징하여

문방도구에도 주로 새겨졌습니다.

또한 나쁜 기운을 막고 길한 것을 불러오는 벽사와 수호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일상 속 생활용품에 꾸미는 데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용은 우리의 삶 곳곳에 다채로운 의미와 형상으로 깃들어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상서로운 존재^{存在}였습니다.

009
백자청화운용문호

원주000514

입지름 13 바닥지름 14 높이 37
조선

용 한 마리가 여의주와 함께 작은 구름 사이로 비상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장식되어 있는 항아리로
구연부에는 운문^{雲文}, 경부에는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가 표현되어 있다.



010
용문 龍文 별전

원주000245
오병세 기준

길이 4.75 너비 4.75 두께 0.25
조선

한 면에 오조룡 五爪龍이 양각되어 있는 별전이다.
다섯 개의 발톱이 있는 용은 황제를 상징하여
주로 왕실에서 사용한 물건에 장식되었다.



011
飛龍 비룡명 별전

원주000248
오병세 기준

길이 2.55 너비 2.55 두께 0.1
조선

사각형 구멍을 중심으로 날고 있는 두 마리의 용과
'飛龍', '住天'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012
동제용문원형경

원주000798

길이 16.3 너비 16.4 두께 0.5
고려

중앙의 고리^扣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대칭을 이루며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013
용형

원주000252
오병세 기증

길이 14.3 너비 8.8 두께 2.1
조선



014

용잠^{龍簪}

원주000549

길이 37.8 너비 4.4 두께 0.95

조선

여성의 쪽 찐 머리를 고정하기 위한 비녀로 용두^{龍頭}형으로 장식된
비녀 머리와 몸체로 연결되는 상단에는 비늘 모양이 선각^{線刻}되어 있다.



015

홍배판

원주001146

가로 67.7 세로 30.8 너비 3
조선

홍배의 자수를 놓는 데 필요한 밑그림을 새겨 놓은 나무판으로 앞면의 우측에는 학과 구름 문양을, 좌측의 위쪽에는 용과 아래쪽에는 호랑이를 배치하여 권력과 위엄을 표현하였다.



016

상여장식

원주001458(위), 원주001456(아래)

청룡 길이 41 높이 28
황룡 길이 42.6 높이 24
조선

청룡과 황룡 머리 모양의 상여를 꾸미는 장식이다.

용은 상여를 장식하기 위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로, 죽은 자가 저승길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수호자의 역할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017
암막새

원주000893

가로 67.7 세로 30.8 너비 3
조선

반원형의 드림새^{돌새}가 부착되어 있는 기와로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



018
소반

원주001779

가로 50.3 세로 36 너비 26.5
조선

음식을 차려내거나 운반할 때 사용했던 가구로 소반의 옆면에 용과 물고기 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019
능화판

원주001065

가로 67.7 세로 30.8 너비 3
조선

책 표지에 문양을 찍어내는 판으로 중앙에 봉황과 용, 바탕에는 만^卍자문을 나열하였고
측면에는 복^福자와 수^壽자를 새겼다.
봉황과 용은 사령^{四靈}에 해당되는 상서로운 동물^{瑞獸}로 비범하고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020
휴대용 목통^{목筒}

원주000240
오병세 기증

길이 17.2 너비 3.2 두께 1.6
조선

붓통과 묵통이 붙어 있는 형태로 둥근 뚜껑을 열고 붓을 꺼낼 수 있게 되어있다.
묵통의 표면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



021

용문 버루

원주001053

가로 9.5 세로 19.4
조선

용문^{龍文}이 새겨진 버루로, 승천하는 용은 벼슬길에 오르는 의미를 지녀
선비의 문방도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022

운용문버루

원주003471
오병세 기증

가로 57.5 세로 31.5 높이 12
중국-청

단계석으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버루^{端溪硯}로 구름을 휘감고 있는 용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Ⅲ 신통방통 용, 재주를 부리다

1. 용, 칠기와 만나다
2. 용, 화폭에 담기다

용은 연못·강과 바다를 지배하는 물의 신^{水神}이자 천둥, 번개와 같이 비를 관장하는 우사^{雨師}로 용의 유연한 형체와 무궁무진한 움직임은 물의 성질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유로이 공중을 날아 구름과 비를 몰며 기상천외한 재간을 부리는 용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造化}의 능력을 동반합니다.

『관자^{管子}』 수지^{水地} 편에 따르면 용은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게 오므라들 수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지를 덮을 만큼 부풀 수 있으며,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면 깊은 샘 속의 밑바닥까지 잠길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특히 용은 다 자라서 뿔이 나며 여의주를 물고, 물·비·바람을 만나야만 비로소 승천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긴 노력과 강한 끈기로 능력을 갈고 닦아 훌륭한 경지에 오른 원주 예술계 거장들의 작품들과 화폭에 담긴 용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신묘한 용의 기상을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용, 철기와 만나다

023

용 도안

일사001366
김육환 기증

종이에 먹
가로 59.5 세로 41
일사-^抄 김봉룡 | 1970년대



024

나전서류함 도안

일사000284
김육환 기증

가로 43 세로 33.5 | 가로 13 세로 34 | 가로 13 세로 34.5
일사-^抄 김봉룡 | 1966년



025
용과 호랑이무늬 도안

일사000950
김육환 기증

종이에 먹
가로 15 세로 41.5
일사-沙 김봉룡 | 1960년대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형상을 통해
용감성을 표현하였다.



026
칠화용무늬팔각쟁반

원주002980

가로 26.5 높이 6.5
일사-沙 김봉룡 | 1970년

낙랑채색칠기의 전통 칠화 소재들을 표현한
내주외흑內朱外黑의 칠화칠기이다.
세필로 표현된 역동적인 용의 움직임과 운문雲文,
연주문連珠文은 김봉룡 칠화의 정수를 보여 준다.



027
칠화용무늬원형벽걸이

원주002996

지름 36 두께 1.8
일사-^抄 김봉룡 | 1970년대

구름 사이를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개가 보이는 칠화칠기 작품으로,
바탕색으로 주칠을 할 때 번짐의 효과를 주어
깊이 있는 색이 살아나도록 하는 바림법을 사용하였다.



028
주칠애기장

원주005399
박정수 기증

가로 68.2 세로 38.1 높이 110.3
일사-^抄 김봉룡 | 광복이후

애기장은 방의 머리말에 놓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으로,
머릿장이라고도 한다.

결혼 혼수품으로 제작된 주칠애기장의 각 층에는
용, 한 쌍의 학과 사슴이 나전기법으로 표현되어
부부의 화합과 행복을 염원하고 있는데,
윗층에는 여의주를 나르는 용의 용맹함이 묘사되어 있다.



029
나전칠기애기장

원주003474
정연철 기증

가로 72 높이 117
우사^{우사} 이형만 | 1990년대

화려한 꽃음질의 기법으로 장식된 나전칠기애기장으로,
녕쿨무늬의 대담하면서도 정교함이 돋보인다.
하단부에는 두 마리의 용이 대칭을 이루며 표현되어 있고,
거북모양의 손잡이로 장식해 복을 기원하였다.



2. 용, 화폭에 담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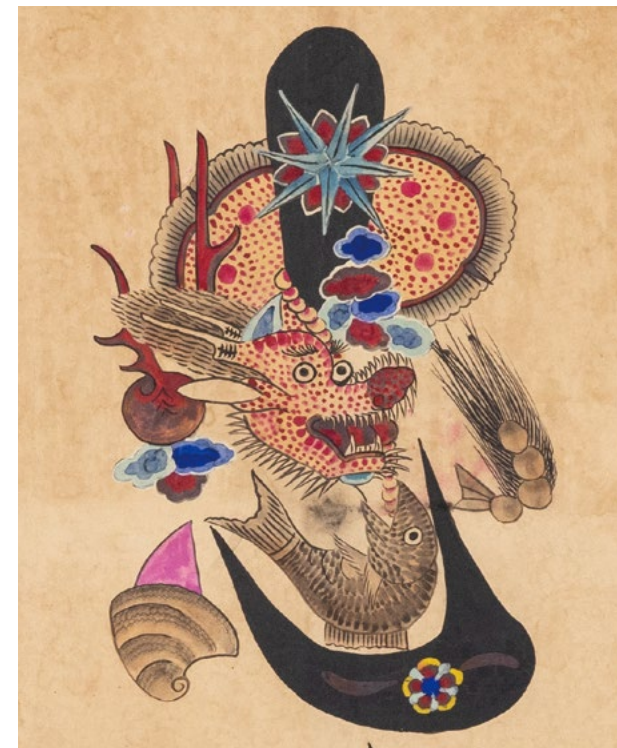
030
석강 황승규 문자문방도 8폭 병풍

원주006174

가로 312 세로 137.8
석강^{석강} 황승규(黃昇奎, 1886~1962)
20세기 초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화작가 석강 황승규(石岡 黃昇奎, 1886~1962)의 전형적인 문자도 병풍으로, 단청을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과 힘차고 매끄러운 선이 특징적이다. 상단에는 직접 쓴 화제^{화제}, 중앙에는 오른쪽부터 효^효, 제^제, 충^충, 신^신, 예^예, 의^의, 엄^엄, 치^치 순으로 여덟 글자의 문자도, 하단에는 책가도 또는 화조도를 함께 그린 구도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충^충자에는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등용문 고사를 소재로 한 내용이 그려져 있다.



031
기룡양류관음도 騎龍楊柳觀音圖

원주004113

가로 65 세로 93
광복이후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쥐고,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는
양류관음(楊柳觀音)이 구름에 둘러싸여 청룡을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불화이다.



032
노회신벽화묘 벽화 모사도 용

원주003479
송기성 기증

가로 65 세로 93
광복이후

원주 동화리 노회신벽화묘에 그려진
사신도 벽화 중 청룡을 묘사한 작품이다.



033
용

원평004203

가로 24 세로 35
원평^{原平} 이재걸 | 광복이후

양지에 묵으로 용을 그린 그림이다.



034
용

원평004328

가로 36 세로 35
원평^{原平} 이재걸 | 광복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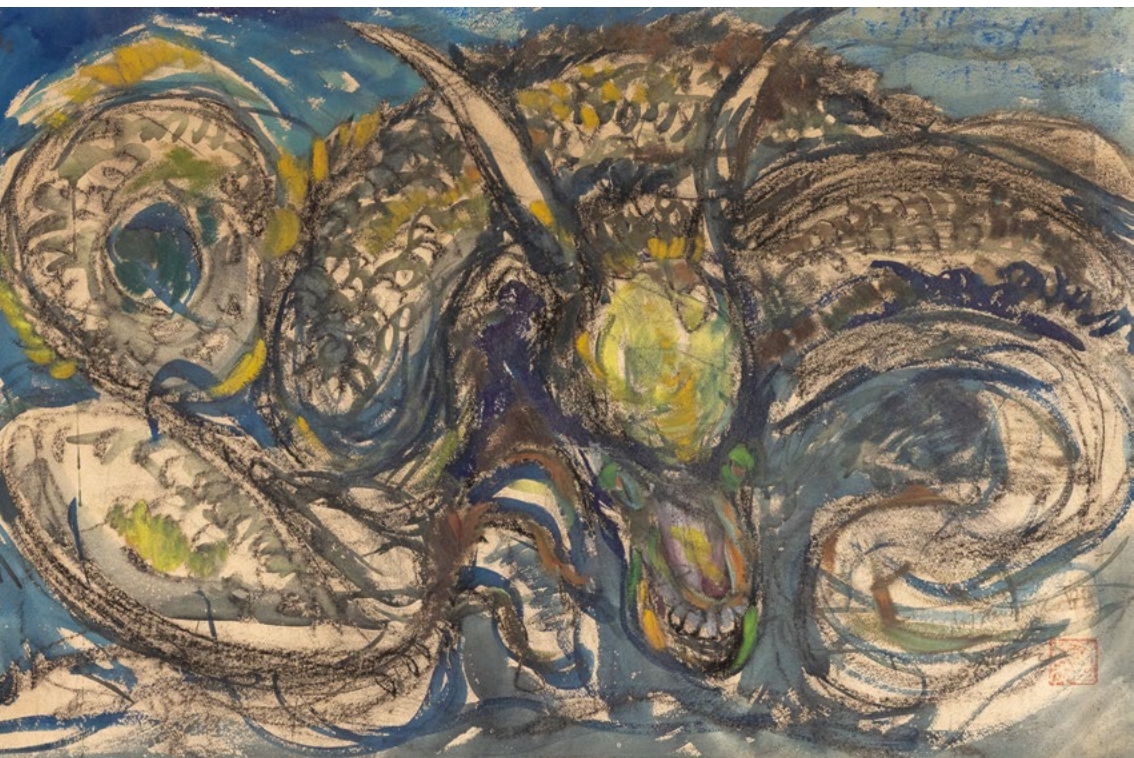
무진년 1월 1월^{백년} 치악산 아래에서 용의 해를 맞이하여 묵으로 그린 그림이다.



035
용

원평001464

가로 93 세로 62.5
원평^{原平} 이재걸 | 광복이후



에필로그 Epilogue
Ⅳ 우리 곁에
있어용^龍!

Ⅳ. 에필로그 : 우리 곁에 있어용^龍!

원주는 용과 관련된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다양한 설화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원주 구룡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시기(66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古刹}로 의상이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던 깊은 연못에 절을 지으려 하니, 용들이 이를 막기 위해 뇌성벽력과 함께 비를 내려 산을 물로 채우자 의상이 직접 그린 부적을 연못에 넣어 물을 마르게 했고 결국 용 한 마리는 눈이 멀고 여덟 마리 용은 구룡사 앞산을 여덟 조각으로 갈라놓고 도망쳤다는 설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머느리봉은 원주시 봉산동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모래기 소류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301.6m 산으로 부잣집에 탁발을 온 스님이 집주인에게 쇠뿔으로 봉변을 당하고 며칠 후 많은 비가 내려 집과 집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부잣집 머느리는 스님을 쫓아가 용서해달라며 쌀을 시주한 결과, 스님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오라 했지만 머느리가 무심코 뒤를 돌아 집터 땅에서 용이 터져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순간 돌이 되어버려 그 봉우리를 ‘머느리봉’이라 하고, 집터는 용이 터져나온 골짜기라 하여 ‘**용터지기**’라고 불린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국보 제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에도 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 몸의 옆면에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뚜렷한 용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탑비 머리 부분에 여러 마리의 용이 얹혀 새겨져 있습니다.

원주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그림을 통해 여전히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는 용의 흔적을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036

머느리봉 설화

제3회 원주역사그림공모전 금상 | 김규리



037

법천사 지광국사탑이 있어야 할 곳

제7회 원주역사그림공모전 대상 | 신유섭



038

구룡사 설화

제5회 원주역사그림공모전 금상 | 김서현



039

치악산 구룡사의 전설

제8회 원주역사그림공모전 은상 | 박한별



040

치악산 구룡사의 전설

제12회 원주역사그림공모전 은상 | 이채울





참고문헌

단행본

원주시립박물관 (2003). 돌에 새긴 뜻그림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원주: 디자인파워

천진기 (2003).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박영수 (2005).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서울: (주)영교출판 내일아침

국립민속박물관 (2023). 용, 날아오르다. 서울: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서울공예박물관 (2023). 나전장의 도안실. 서울: 엘엔에스컴

학술논문

임승택 (2016). 나전장 김봉룡 칠화 작품의 조형 분석. 한국가구학회지, 27(3), 185-196.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지역N문화 -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
(<https://ncms.nculture.org/origin-of-place-names/>)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

발행처 원주시역사박물관

발행일 2024년 2월 27일

전시총괄 차순덕

전시기획 차만석, 정수민

전시진행 김인호, 김은미, 정수민, 정동환, 현윤진

원고집필·교정 정수민, 김은미

유물촬영 김인호

유물출납 정수민, 정동환

진행협조 박광식, 석병철, 정태화

행정지원 이창환, 최지혜, 전소혜, 신승록

디자인·제작 디자인퍼플

원주시역사박물관

주소 263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

전화번호 033-737-4371

홈페이지 whm.wonju.go.kr

